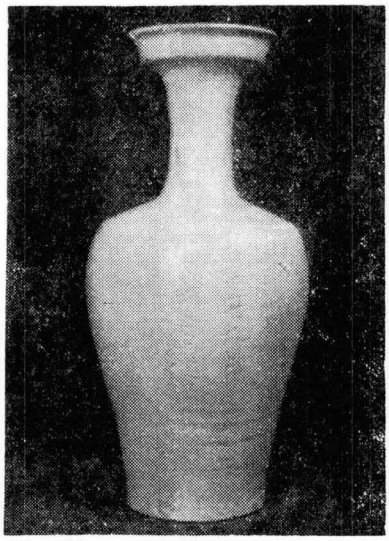
己丑銘靑磁甁

崔 淳 雨

요사이 서울 金元全氏의 蒐集品中에서 「己丑九月 日造上 遠年使用甁」이라는 陰刻銘의 靑磁甁이 調査되어 左銘 靑磁의 좋은 例를 하나 더하게 되었다。 흔이 唐風의 鷄口甁이나 치마甁같은 것에서 그 類型을 볼 수 있는 넓은 입의 典雅한 酒甁으로서 첫눈으로 쉽사리 이 병이 지닌 古格을 알아볼 수가 있게 해준다。 釉色은 帶綠灰靑色의 前期高麗靑磁釉 特色을 잘 갖추고 있으며 胴體一部의 釉色는 酸化되어 帶黃釉色을 보인 곳도 있고 施釉가 不足했던 적은 部分에서는 赭黑色을 보인 곳도 있다。 胎土는 精選된 淡灰色이고 釉氷裂은 部分的으로 나타나 있으나 注意되지 않을 정도며 대체로 靑磁象嵌發生前의 靑磁特徵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銘文의 刻字도 稚拙은 免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此種 銘文中에서는 達筆에 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刻銘은 甁의 날신한 形態와도 잘 어울린다。 象嵌技法發生前의 靑磁時代에 屬하는 己丑으로는 대강 睿宗四年(一一〇九)과 文宗三年(一〇四九)의 두 해를 들 수 있으나 이제까지의 知見으로는 文宗三年은 아직도 靑磁窯技가 初期的 段階에서 脫皮되지 않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甁에서 볼 수 있는 本格的인 이 釉胎로 보아 一〇四九年으로 보기는 힘들므로 따라서 睿宗四年(一一〇九)에 比定할 수 밖에는 없게된다。 즉 一一〇九 다음의 己丑은 象嵌全盛期라고 볼 수 있는 毅宗二十三年(一一六九)이므로 象嵌이 全盛하던 때에 象嵌장식도 없이 그 銘文조차도 陰刻銘으로 한 것으로 보아 毅宗二十三年이라는 推定을 세울 수 없고 甁型으로 보나 釉胎로 보나 結果的으로 이 己丑은 睿宗四年(一一〇九)에 比定할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면 이 己丑年 銘甁은 淳化四年銘壺다음으로 오래인 紀年銘靑磁로서 이 甁이 차지하는 位置는 자못 중요하다고 할만하다。 甁의 全高는 二七·九㎝에 最大胴徑은 一三·六㎝ 口徑이 八·九㎝ 底徑은 八·六㎝의 크기로서 이러한 類型甁 中에서는 날신한 體型을 지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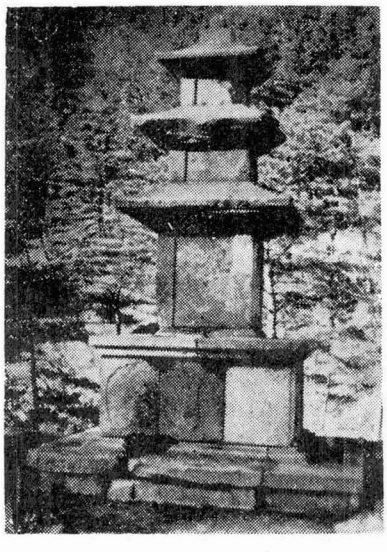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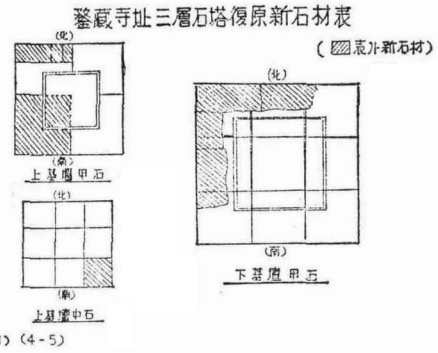
麥金藏寺址石塔復原에 對하여

洪 思 俊

慶州市 暗谷里所在 麥藏寺址에 있던 三層石塔은 從來 塔全體가 倒壞되어 그 全貌를 알 수 없었던 바 國庫로 復原工事가 秋期에 着工 十二月 十三日字 竣工을 맞쳤다。

其間 塔材가 어느 程度로 地上에 殘存한 것으로 알았던 바 建立工事를 進行하면서 調査한 바에 依하면 塔身部에는 別다른 異狀이 없었으나 基壇部의 若干石材와 露盤伏鉢이 全無함으로 不足材를





表材石新原復塔石層三址寺藏鑒

新石으로 補充하였는데 그 位置를 아래에 明記하여 後考에 供하는 바이다。

基壇部에서 下基壇甲石 中에 屛風石이 서 있는 以外의 甲石이 西端及 西北端이 끊어져서 外觀上 그저 두기가 不美하여 新石으로 四個甲石을 補完하였으며 屛風石에 東南隅石이 缺失하여 新石으로 補充하였다。 다시 上臺甲石에도 破損石이 西南隅石에 一枚와 西北隅石에 一枚가 있어서 更新하였음을 말하여 둔다。 그리고 上記한 바와 같이 露盤及伏鉢은 高仙寺址의 그것을 模倣해서 新石으로 補充하였으나 完全치는 못하였다。 塔周圍는 本來에 流土로 傾似面을 이루어 있으므로 復原工事와 同時에 塔基壇 一 m 幅으로 平面整地하여 流土防止에 그쳤다。 從來 塔前에는 石燈이 있었는 듯 石燈下臺石 一個(完)가 半以上 地上에 埋沒한 것을 整地한 塔前左側에 놓았으며 石燈蓋石이 개울 越便 叢林에 묻힌 것을 塔前右側(南西)에 運搬하였다。 竿石과 中臺石 火舍石만 있으면 이것도 復原시키는 것이 좋을 것같았다。

現 塔의 位置에서 二段地上에는 碑身이 없는 雙龜趺가 前位置에 있는 듯한데 碑座와 螭首가 分離해 있는 것을 今次 龜趺上에 運搬하였다。 螭首의 一部가 破損流失되었으며 龜部碑座四側에는 前後에 各四區 左右側面에 各二區의 十二支像이 있다。 現在는 風磨와 雨洗로 또는 靑苔로 가득 차서 全貌가 잘 들어나지 않고 있다。

塔總高(地上에서) 十六尺三寸(新造伏鉢及露盤包含)
露盤及伏鉢 高 一尺二寸
下基壇甲石 各 廣幅 十尺六寸

方壺子의 弼雲臺圖

孟 仁 在

一

이 弼雲臺의 畵者는 李朝後人으로만 짐작되고 있을 뿐 그 本名이나 在世에 關한 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그림에는 一貫해서 方 子로만 署名되어 있는 듯하며 그의 本名을 完全히 밝힌 그림은 아직 본 일이 없다。 國立博物館이나 高麗大學校博物館에 있는 몇 幅의 그림은 모두 그러하며 款印도 보기가 매우 어려운 듯 하다。 이 弼雲臺圖에는 款印하나가 있으나 그의 姓名을 알기에는 不足한 것이며、 그 姓氏를 모르는 限 이것으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짐작할 수도 없다。

그런데 日前에 斯界의 劉某先生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本名이 張始興임을 밝힌 그림이 있을 뿐 아니라 그 在世에 관한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은 아직 直接 確認치 못한 것이므로 뒤로 미룬다。

二

弼雲臺를 寫生한 그림은 이미 考古美術 第一卷 第五號에 崔泳喜氏가 「『金吾詩帖』의 謙齋畫、弼雲臺京師春色圖」라는 題名으로 紹介한 일이 있다 이것은 有名한 鄭 敾(一六七六——一七六九)의 作品이며 方壺子의 것보다는 꽤 앞서는 것인데 이 兩者 사이에는 서로 틀리는 點이 있다。 即 謙齋의 視點은 北에 있고 方壺子의 視點은 南쪽에 있는 것과 謙齋의 臺는 方壺子의 것보다 一段 높고 따라서 前者의 人物들은 위에、 後者의 人物들은 아래 岩盤에 있다는 點이다。 視點은 勿論 自由이니까 보는 사람의 느낌만 틀릴 뿐이나 前者가 위를 後者가 아래를 臺로서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臺가 정말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이것은 臺를 높인 謙齋의 畵面에서는 高揚된 이메이지를 그것을 眼下에 낮추어 擴大시킨 後者에서는 一種의 驚異를 느끼게 하는 結果가 되게 한 듯하며 아울러 上下가